

제25회 세계결핵의 날 기념

“기념식 및 결핵퇴치 2030 결의식” 성황리에 마쳐...

글 김강희(본지기자)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3월 23일 제25회 세계결핵의 날을 맞아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 및 청계광장 일대에서 보건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다양한 부대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오전 10시부터 하나원 이충원 원장의 “새터민의 건강현황과 이해” 그리고 결핵연구원 류우진 역학부장의 “우리나라 결핵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기념강연을 시작으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정부표창 및 복지사 대상 시상, 홍보대사 위촉 등의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날 그 심각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20~30대 젊은 연령층의 결핵문제와 다제내성 결핵의 확대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면서 이러



위 || 김성규 대한결핵협회장이 (주)다음커뮤니케이션 김철균 부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아래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2007 결핵 홍보대사로 새롭게 위촉된 '크라이밍 넷' 멤버들.

한 결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6년 발표된 결핵퇴치 2030 계획 수행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고 아울러 국민들의 잘못된 결핵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치사를

통해 결핵퇴치 2030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복잡자대상 2명, 대통령상 1명, 국무총리상 2명, 보건복지부장관상 50명 등 총 5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19회를 맞이하는 복잡자 대상 공로부문에는 前결핵연구원장 이자 現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 결핵 세균학 자문위원인 김상재 님이, 봉사부문에는 부산시 남구보건소 지방간호주사인 정인옥 님이 수상하였다.

이밖에 대통령 표창에는 결핵퇴치를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결핵연구원 강미경 국제협력실장이, 그리고 국무총리상에는 강원도 보건위생과 양금란 지방간호사무관, 경기고등학교 보건교사 조희순 선생님이 수상하였다.

수상자 시상에 이어 작년 연말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진행한 E-mail에 크리스마스 썸 붙이기 행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김철균 부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아울러 20대 결핵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신세대 락그룹인 "크라이밍 넷"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한국언론재단에서의 기념행사를 마쳤다.

한국언론재단에서의 기념행사가 끝나고 타악 퍼포먼스 그룹 “굉명”의 힘찬 공연을 시작으로 청계광장에 마련된 “결핵퇴치 2030 계획 결의식”행사가 바로 이어졌다.

결핵무료검진 및 상담, 결핵판넬 전시 및 홍보물 배포, 건강가훈 쓰기, 네일아트 등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및 2007 결핵홍보대사인 크라잉 닷, 안치환 등의 축하 공연, 그리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여러 시민들의 결핵퇴치에 대한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아로새긴 대형 천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본회 김성규 회장, 박준형, 정종철, 오지현 등의 홍보대사, 그리고 행사관계자 및 일반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마음으로 하늘 높이 날린 희망의 천 띄우기 퍼포먼스



위 || 유시민 장관과 김성규 회장이 본 행사장에 마련된 모금함에 결핵퇴치 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아래 ||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결핵퇴치 염원을 담은 희망의 천이 하늘로 띄워지고 있다.



좌측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사장에 마련된 이동검진차량에서 홍보 X-선 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위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규 대한결핵협회장, 홍보대사 박준형, 정종철 및 여러 시민들이 결핵퇴치 염원을 담은 희망의 천을 하늘로 띄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아래 || 2007 결핵홍보대사로 위촉된 '크라잉 넷'의 열정적인 축하 공연무대.



등으로 구성된 이 행사에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사장에 준비된 무료결핵검진 등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한 시민들에게 홍보전단을 직접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본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고, 인기가수 크라잉 넷과 안치환의 축하공연에서는 점심시간에 행사장을 찾은 여러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더해져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청계광장에서의 이번 행사는 이처럼 '결핵, 사라진 질병'이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결핵인식을 '결핵, 우리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 성공적인 행사로 기억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